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 정진”

올해 새해설계

정기명 여수시장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시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민생 대책반을 운영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연초부터 100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을 시작

으로, 지난해보다 발행 규모를 확대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상반기 내 지출이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연말, 정부의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따라 여수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



록 적극 건의하고, 노동자 복합문화센터와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 정책 안내와 고충 해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대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울 계획이다. 특히 새해에는 2025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고삐를 단단히 잡는다. 행사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 만큼 당초보다 428억원이 증액된 6

76억원의 사업비로 더욱 풍성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도시숲을 주행사장 일대에 조성해 섬박람회 이후에도 힐링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박람회 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와 섬 테마존 등을 설치한다.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에는 K-관광의 거점,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도 힘차게 이어간다. 여수만 르네상스 세부 실현을 위해 여주만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장수만 중심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막만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와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시립박물관을 개관하고, 여문 문화의 거리도 새롭게 재정비한다. 10년 만에 진남관을 2월에 재개관하고,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인 전라좌수영 동헌 역사문화공원과 선소테마정원 조성 등을 완성해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호국도시 여수의 위상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전라선 고속철도 철도사업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돌산 신복에서 우두로 이어지는 국도 17호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장 별관 청사 증축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여서청사 복원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신속히 추진한다.

정기명 시장은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기조로 삼아 ‘모두가 꿈꾸는 도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달려 가겠다”며 “새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시가 지난달 30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준공을 기념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준공

지역 전략산업, 강소·벤처기업 육성 공간

광양시는 1일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업센터’)는 미래 수요 기반 광양만권 소재부품 산업화의 거점을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 및 강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2019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20년 건립 사업에 착수한 지 5년여 만에 준공됐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상 5층 건물로 1층과 2층은 공동 활용지원시설(운영사무

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회의실, 체력단련실, 식당, 카페 등)과 3층부터 5층까지 입주 공간 36개소(층별 12평형 10개, 20평형 1개, 40평형 1개)로 구성돼 있다.

입주 공간은 3층 철강산업, 4층 에너지산업, 5층 융합 산업으로 층별 지역 특화산업과 강소·벤처기업이 집적화돼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사무실 용도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록 등이 가능해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강소·벤처기업에

서 유용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0일 전남테크노파크와 운영협약을 체결한 광양시는 오는 16일까지 입주 기업 모집에 나선다.

선정된 기업들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신청 문의는 전남테크노파크(061-761-7094)로 하면 된다.

한편 광양시는 ‘지식산업센터’와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양대 거점으로 삼고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화순군, 제주항공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

오는 4일까지 주민합동문화센터 2층...유가족 법률·심리지원도

화순군은 1일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신속한 피해 수습과 희생자 지원을 위해 사고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현장 지원에 나섰다.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 화순군민 9

명과 공직자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를 당한 공직자 4명 중 1명은 지난날 31일자로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였고, 군민 9명 중 4명은 퇴직공무원, 나머지 5명은 부자 관계의 고등학생 가족 3명과 각각 배우자와 이사에 주소를 둔 군민 2명이었다.

화순군은 사고 희생자 확인 즉시 개별 장례 지원에 착수했으며, 오는 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민합동문화센터 2층 합동분향소에서 누구나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6급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피해 유가족과 1대1로 배치해 장례·보상·법률·심리 지원으로 유가족 불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특교세 1억 확보...담양시장 점포 사용료 인하 등 호평

담양군은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급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안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물가안정화에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담양군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동결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

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2024년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 1억원) 담양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특히 ▲담양읍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 ▲담양사랑상품권 정액공모 5% 추가 적립 사업 ▲담양시장 상설시장 개장에 따른 점포 사용료 인하 등 담양군만의 특색있는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 ‘명품’ 고로쇠수액 중순부터 판매

해발 700m 기슭 백암산·입암산서 1~3월 채취

장성군은 1일 “이달 중순부터 백암산·입암산 해발 700m 기슭에서 고로쇠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해당지역 약 730ha 면적에 분포돼 있는 고로쇠나무 6천여 그루에 대한 수액 채취를 허가했다.

고로쇠수액에는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숲이 주는 선물’이라 불린다.

뼈 건강은 물론 위장병, 관절염, 당뇨 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지닌 노령산맥에서 채취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달콤하면서 시원

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고정 고객만 1만여 명이 넘는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성군은 정제시설(사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품질보증제도를 강화하는 등 고품질 고로쇠수액 채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5ℓ 들이 6병 포장과 12병 포장 두 종류로 판매하며 방문 구입, 온라인, 택배 거래 등 모두 가능하다. 가격은 6병 포장 3만5천원, 12병 포장 7만원이며 12병 제품을 구매하면 택배비를 할인해 준다. 구입문의는 남창마을(061-393-9896), 가인마을(061-392-7790)로 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시, 2025 상반기 정기인사

순천시는 “최근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4급 4명, 5급 승진의결 8명, 6급 11명, 7급 20명, 8급 40명 등 총 83명을 승진시키고 362명을 전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보를 최소화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과, 리더십,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진자를 결정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하반기를 맞아 문화도시,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특히 신성장산업에 바이오산업1·2팀을 신설해 바이오 분야 기업 투자 유치와 전남 균형발전 300프로젝트(300억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현장대응 1팀과 2팀을 신설해 작목별 농업인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읍면동 인력을 보강해 민생회복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썼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문화·바이오·항공우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재를 배치했다”며 “순천시가 정원도시를 넘어 문화도시, 기업도시, 남해안 우주벨트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주)해담, 복합커뮤니티센터 불링장 기부채납 협약 체결

군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 기대

보성군은 “최근(주)해담과 보성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불링장 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정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이룩했다”고 1일 밝혔다.

(주)해담이 민간투자자로 설치하는 시설은 14레인 규모의 불링장(1천163㎡)과 부속 휴게실(130㎡), 톨리 장비 대여점·매점(61㎡) 등이다.

운영 방식은 불링장 시설 등의 공사

후 준공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기부채납 한 후 투자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형태다. (주)해담은 지역 체육회·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인근 학교의 체육수업과 방과 후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과 불링동호회 활성화 등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불링장 등 여가 시설이 부족해 군민들이 타지로 이동해 생활체육 활동을 즐겼으나,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관내에서 손쉽게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군민들에게 새로운 여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군민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순항 중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 전체면적 1만6천18㎡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